

# 광주 땅값 1위 '총장 우체국'...광주·전남 공시지가 상승

### 광주 공시지가 전년 대비 1.94%↑...가장 싼 땅 왕동 임야 m당 884원 전남 1.42% 상승...신안군 관리계획서 도시지역 변경 돼 상승폭 가장 커

광주와 전남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각각 1.94%,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94%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폭 1.45%보다 낮고, 전국 평균(2.72%)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시내 37만398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북구가 2.23%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남구(2.16%↑), 서구(2.09%↑), 광산구(1.72%↑), 동구(1.38%↑) 순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은 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우체국 부지로 m당 1227만원(전년비 137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광주시 광산구 왕동 임야로 m당 884원(↓ 7원↑)였다.

전남은 전년 상승폭인 0.49%보다 상승한 1.42%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54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이날 공시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신안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3%로 가장 높았다. 신안군은 관리계획지역이었던 압해읍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균 지가가 상승했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관리계획지역에 편입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안에 이어 순천시(1.84%↑), 여수시(1.75%↑)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가장 적게 오른 곳은 곡성군(0.52%↑)이었다.

전남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m당 432만원을 기록했고, 가

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m당 168원이었다.

이날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광주시와 전남도 및 각 자치구와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오는 6월 26일 지가 조정을 공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올해 광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우체국 일대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자연친화적 힐링 산책길 함께 만들어요"

### 광주도시공사, 산책길 조성 프로젝트 등 ESG 활동 확대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0일 서구 금호빛어울채 아파트에서 임직원과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책로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금호빛어울채 산책로에 자연 친화적인 야자매트를 활용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야자 매트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돼 휴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끄럼 방지 효과 등도 뛰어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산책로 조성활동은 광주도시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ESG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1단계 사업 준공

광주 광산구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1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 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사업(1단계)이 준공됐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당선 당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해당 사업을 민선 8기에 해결해

야 할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다.

사업과 관련한 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062-360-3186)과 광주시 공간혁신과(062-613-1781), 광주시 광산구 도시계획과(062-960-8523)에 비치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혜나 기자 khn@

## 5월 광주 아파트 320세대 분양...전국 1만7176가구

### 지난해 동월 대비 7% 줄어...조기 대선 앞두고 분양 서둘러

이번 달 광주에 아파트 3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1만7176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작년 동월 대비 7% 줄어든 것이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광주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20가구다. 수도권 1만1697가구, 지방 5479가구로 수도권이 2배가량 많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6603가구, 서울 4333가구, 인천 76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부산 1840가구, 충북 1448가구, 강

원 569가구, 대구 540가구, 경북 463가구, 광주 320가구, 경남 299가구 등이다.

직방은 이달 분양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계획 물량이 다소 줄었지만 감소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분양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분양 전망 지수가 서울 108.3, 경기 97.3, 인천 93.3 등으로 기준선(100)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4월 실제 분양된 물량은 총 2만1076가구(4월 24일 기준)로, 분양 예정 물량(2만3730가구)의 89%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올해 들어 한동안 분양 실적률이 저조했으나 4월에는 기대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분양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 일정을 미루기 어려웠고, 조기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기 전 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직방은 풀이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5월부터 발송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HUG,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점 '무벌점' 달성

### 공시 모니터링 강화·담당자 교육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연 3회 통합공시 점검을 통해 공시 불이행·허위 공시·공시 오류·공시 변경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벌점 결과를 발표한다.

HUG는 지난해 ▲경영진 주관 공시 점검 회의

▲공시 업무 계산판 운영 ▲ESG 자율 공시 항목 추가 발굴 ▲공시 모니터링 강화 ▲공시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공시 업무 체계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무벌점 성과를 이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 임직원들이 경영 공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시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